

# 여자배구 페퍼스 “원 팀”으로 4강 진출하겠다



장소연 감독

장소연호, 29일 현대건설과 컵대회 첫 경기로 실전 돌입  
2024-2025시즌 V리그 10월 19일 개막...9일 출정식

새로운 사령탑 체제로 준비를 마친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2024 통영·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로 첫 실전에 나선다. 이번 KOVO 컵대회 여자부 경기는 오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치러진다. A조에 속한 페퍼스는 29일 오후 4시 현대건설과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조별리그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10월 1일 오후 3시30분 한국도로공사, 3일 오후 1시30분 GS칼텍스와 맞붙는다. 조별리그 상위 2개 팀이 10월 5일 준결승을 치른 후 6일 우승컵의 주인공이 결정된다. 컵대회를 통해 정규리그 예열을 마친 국내 프로 여자배구단 7개팀은 오는 10월 19일 막을 올리는 2024-2025시즌 V리그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게 된다.

지난 2023년 컵대회 개막전은 2022-2023시즌을 마치고 페퍼스로 동지를 옮긴 박정아의 '이적 신고식'이자 조 트린지 전 감독의 '한국 프로배구 데뷔전'이었다. 지난 4월 페퍼스의 사령탑에 오른 장소연 감독 역시 이번 대회를 통해 '감독 데뷔전'에 나선다. 해설위원 출신의 장소연 감독은 "나도 이 팀에서 감독으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페퍼스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겠다'를 확인하는 게 이번 컵대회의 가장 큰 목표"라며 "성적으로는 4강 진출을 목표로 두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장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로 센터 박사랑을 꼽았다. 2021-2022 V리그 여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지명돼 페퍼스에 입단한 박사랑은 지난 5월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 명단에 아웃사이드 히터 박정아, 리베로 한다혜와 이름을 올리며 페퍼스도 모랄레스 여자배구 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2024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출전했다. 장 감독은 "(박)사랑이가 유망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다가올 컵대회에서는 '유망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이 성장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보고, 그런 박사랑이 우리 팀의 키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또 그는 "페퍼스를 맡은 지 반 년쯤 되니 감독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선수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답변드는 모습들이 이전과 달라진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배구의 기본이 되는 어택커버, 상대 손을 맞고 다시 돌아온 공을 받아치는 리바운드 플레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추구하는 배구에 선수들이 맞춰서 노력하고 있다"며 "선수들에게는 '원 팀', '하나'를 강조한다. 선수들 스스로

도 이기고자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잘 따라와주고 열심히 하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장 감독은 실전을 앞두고 가장 견제하는 팀은 '전구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시즌 동안 모든 팀들이 훈련과 연습경기를 통해 피드백을 받고 구단을 정비한다. 각 팀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발휘할 때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특정 팀을 짚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7, 8월에 열렸던 이전 컵대회들과는 달리 이번 컵대회는 시간적으로 V리그로 바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이 그동안 해왔던 노력이 실전에서 나올 수 있는지 점검하고 타 구단의 전력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페퍼스는 오는 10월 9일 오후 2시 페퍼스 타디움에서 2024-2025시즌 출정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를 마친 후 박정아와 한다혜, 장위가 참여하는 미니 사인회가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메인 출입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2개만 더...

KIA 김도영이 27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40-40'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김도영은 지난 23일 삼성전에서 38호포를 기록하면서 대기록에 2개를 남겨뒀다. (KIA 타이거즈 제공)

## 남은 3경기서 타이거즈 역사 쓸까

### KIA 잔여경기 관전 포인트

3연승 하면 구단 최다승 '88승'  
커리어 하이 박찬호 최종 성적  
'인고의 세월' 윤도현 시선집중

'호랑이 군단'이 기록 달성을 위한 막판 스프르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가 열린 2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잔치'를 벌였다. 이날 경기 전 KIA 선수단은 우승 시상식을 갖고 팬들의 함성 속에 정규시즌 우승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기태 전 감독의 시구로 막이 오른 경기에서는 양현종이 '대기록'의 날을 보냈다. 양현종은 이날 '레전드' 송진우에 이어 통산 두 번째 2500이닝을 채운 선수가 됐고, KBO리그 역사상 첫 10년 연속 170이닝이라는 대기록도 완성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올 시즌을 돌아보고 한국 시리즈 선전을 다짐하는 출정식도 진행됐다. 만원 관중 앞에서 '챔피언'의 시간을 보낸

KIA는 27일 한화전, 28일 롯데전을 위해 원정길에 오른다. 그리고 30일 안방에서 NC다이노스를 상대로 올 시즌 피날레를 장식한다. 김도영의 '40홈런-40도루' 도전은 계속된다. 지난 23일 삼성전에서 38번째 홈런을 날리면서 KBO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136'으로 갈아치웠던 김도영은 대기록에 2개의 홈런만 남겨두고 있다. 기록 도전을 위해 토타자로 나서고 있는 김도영은 지난 두 경기에서 4개의 안타를 더했지만 기다렸던 홈런은 만들지 못했다. 김선빈이 "안타를 치고도 표정이 좋지 못하다"고 웃음을 터뜨릴 정도로 김도영의 기록 의지는 강하다. 부상을 딛고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박찬호의 최종 성적도 관심사다. 박찬호는 올 시즌 132경기에 나와 155개의 안타를 기록하면서 0.306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가장 많은 136안타를 기록했던 박찬호는 자신의 안타 기록을 갈아치웠고, 개인 최다인 5호포도 장식하면서 골든글러브를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윤도현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시선이 쏠린다. 윤도현은 시즌 3번째 경기였던 25일 롯데전

에서 안타를 쉬었지만 지난 23일 삼성을 상대로 한 시즌 첫 경기에서 3안타를 쏟아내면서 관심을 끌었고, 24일에도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3루수와 2루수로 나서 수비에서도 테스트를 받고 있다. 한국시리즈 마운드 싸움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에릭 라우어는 30일 최종전을 통해서 실전 점검을 한다. 라우어는 12일 롯데전 이후 손톱 이상으로 등판을 소화하지 못했다. 관중석 기록도 계속된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팬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사상 첫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우승팀' KIA도 흥행의 중심으로 역할을 톡톡히 했다. 25일에도 챔피언스필드 2만 500석이 가득 차면서 시즌 29번째 만원 관중이 기록됐다. 8경기 연속 매진 기록도 작성됐다. 관중수, 매진 경기, 연속 매진 모두 KIA의 신기록이다. 월요일에 진행되는 최종전에도 만원 관중이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올 시즌 현재 85승을 기록한 KIA가 남은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 2017년 작성한 87승을 넘어 최다승 기록으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수창초가 26일 첨단야구장에서 끝난 2024년 추계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 수창초, 추계 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

서석초에 18-2 대승... 박찬호기 전국초등학교 야구 광주대표로

수창초가 26일 첨단야구장에서 끝난 2024년 추계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수창초와 함께 대성초, 서림초, 서석초, 송정동초, 학강초, 화정초 등 7개 팀이 참가해 토너먼트로 대결을 벌였다. 수창초는 송정동초와의 첫 경기에서 8-4 승리를 거둔 뒤 대성초를 13-6, 4회 콜드승으로 누르며 연승에 성공했다. 이어 서석초와의 결승전에서도 18-2 대승을 거두면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수창초는 앞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제30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겸 제22회 박찬호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예선

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이 우승으로 수창초는 준우승팀 대성초와 박찬호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광주대표 자격을 얻었다. ◇대회 시상 내역 ▲최우수선수상 : 임재하(수창초) ▲우수투수상 : 김서우(수창초) ▲타격상 : 김병현(8타수 6안타, 타율 0.750·서석초) ▲최다도루상 : 양재오(5개·서석초) ▲최다타점상 : 최시우(8타점·수창초) ▲감투상 : 문시현(서석초) ▲미기상 : 이황(수창초) ▲감독상 : 류창희(수창초) ▲지도상 : 신현미 교감(수창초) /김여울 기자 wool@

## 오타니 '50번째 홈런공' 경매 나와

최소 입찰가 6억7천만원...60억원 제시맨 경쟁없이 구매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0·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한 시즌 50홈런-50도루 대기록을 완성한 홈런공이 경매 시장에 나왔다. 최소 입찰가는 50만 달러(약 6억7000만원)이고, 450만 달러(60억원)를 제시하면 경쟁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다국적 스포츠매체 ESPN은 26일 "오타니가 친 50번째 홈런공이 경매 업체인 골드에 위탁됐다"며 "경매는 현지시간 27일에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오타니는 지난 20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룬다포 파크에서 열린 2024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와와의 방문 경기에서 홈런 3개와 도루 2개를 포함한 6타수 6안타 10타점 4득점의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MLB 최초 한 시즌 50홈런-50도루 기록을 세웠다. 당시 오타니는 먼저 50도루를 채운 뒤 49번째 홈런과 50번째, 51번째 홈런을 차례대로 날렸다. 대기록을 완성한 50번째 홈런은 7회에 나왔다. 홈런공은 좌측 담장을 넘어갔고, 약 10명의 관중이 공을 잡기 위해 몸을 던졌다. 이중 한 남성이 테이볼 밑에 떨어진 공을 잡았으며 곧 구단 관계자들의 안내를 받아 관중석 밖으로

나갔다. ESPN은 "다저스 구단은 공을 돌려받기 위해 사 30만 달러(4억원)를 제안했으나 해당 관중은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기네스북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매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홈런공은 1998년 마크 맥과이어가 친 시즌 70호 홈런공이다. 1999년 1월 유명 만화가인 토드 맥팔레인이 수표를 포함해 305만4000달러(40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2022년 애런 저지(뉴욕 양키스)의 시즌 62호 홈런공은 경매에서 150만 달러(20억원)에 낙찰됐다. 야구의 역사를 새로 쓰는 오타니가 홈런공 경매 시장에서도 역사를 새로 쓸지 관심이 집중된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